



소령 최석경
제1군사령부 지휘통제장교

하향평준화를 극복한 체력단련 혁신사례

1. 개요

우리군의 교육훈련수준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에 비해 '하향평준화'¹⁾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체력단련 분야의 하향평준화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장거리 행군, 땀걸음, 유격훈련, 기타 체력단련 활동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사고예방 차원의 후속조치로 '못하는 인원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 전체적인 훈련수준이 점진적으로 하향평준화 되고 있다. 이러한 정서가 교육훈련 전반에 퍼져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하향평준화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신개념의 훈련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해답을 제1야전군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하향평준화 되고 있는 군의 교육훈련 정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1야전군에서는 천리행군 및 100km 행군이 <표 1>에서와 같이 '09년도가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점이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하향평준화를 극복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며 시대를 선도하여 '강한 전사, 강한 군대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혁신사례이다. 더불어 체력단련 분야의 하향평준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전반적인 교육훈련 문화를 개선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리하였다.

2. 하향평준화의 원인 고찰

가. 복무기간의 단축

첫째, 복무기간이 <표 2>에서와 같이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6개월이 단축되어 2014년에는 18개월로 복무하게 될 것이다.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표 3>에서와 같이 병력교체율이 증가하고 자연적으로 연간 보충소요 인원도 증가된다. 반면, 출산물은 저조하여 입대가능한 장정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불균형으로 부득이 가용자원의 수준을 낮춰서라도 입대시켜야만 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완화하기 위해 학력은 중졸이상으로,

1) 하향(아래로 향한, 또는 그 쪽, 쇠퇴하여 감), 평준화(수준이 서로 차이나지 않게 됨, 또는 그렇게 함.) 즉, 못하는 낮은 수준에다 맞추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뜻 (고교평준화, 상향평준화)

표 1 천리행군 · 100km행군 실시현황(제1군사령부)

구 분	천리행군 (특공 · 수색부대, 일부보병부대)	100km 행군 (보병, 일부전투지원부대)	비 고
'07년	1개 대대	0	없 음
'08년	9개 대대	9개 대대	18개 대대
'09년 (10월한)	15개 대대	18개 대대	33개 대대

표 2 병복무기간의 점진적 단축

구 분	현 행	단 축 후	단 축 방 법
육군병(해병병)	24개월	18개월(-6개월)	'06. 1. 3~'11. 1. 1 : 3주단위 1일씩 '11. 1. 2~'14. 7. 26 : 2주단위 1일씩
해 군	26개월	20개월(-6개월)	'05. 11. 3~'11. 1. 2 : 3주단위 1일씩 '11. 1. 3~'14. 6. 15 : 2주단위 1일씩
공 군	27개월	21개월(-6개월)	'05. 11. 3~'10. 12. 24 : 3주단위 1일씩 '10. 12. 25~'14. 5. 18 : 2주단위 1일씩

표 3 신세대 연간교체율 · 입대가능 신체등급 및 학력수준 비교표

구 분	~에서 : '06년 까지 (24개월 복무)	~으로 : '07년 후 (기간단축 : '09년 기준)	비 고
연간 병력교체율(대대급)	약 53%	약 60%	교체율 증가
입대가능 신체등급/학력	3등급/고졸 이상	3등급/중졸 이상	수준 저조

신체검사 등급은 3급으로 동일하나 소요 인원부족에 따른 신체검사 수준의 간접영향도 과거보다 좋은 여건은 아니다. 둘째,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입대자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훈련 노하우의 축적이 부족하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훈련 전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사회환경의 변화와 군의 정서

사회환경의 변화로 신세대 장병의 신체적 특징이 과거보다 체격조건은 양호한 데 비하여 체력과 인내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체허약자와 특이체질자도 오히려 늘어났다. 또한 안경착용자는 50%에 육박하고, 체력등급은 입대초에 체력등급이 4급 이하가 80% 이상이며, 각종 특이 알레르기 등 질환자가 많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훈련에 부정적 요인이다. 그리고 교육훈련에 대한 군의 정서는 앞에서 제시하였던 여러 요인과 더불어 사고발생에 따른 예방차원의 후속조치로 인하여 '못하는 인원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훈련수준이 점진적으로 하향평준화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발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3. 전투실상과 하향평준화 극복방안 및 혁신사례

가. 전투실상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의 전투실상을 살펴보고 착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4>에서와 같이 KCTC 훈련결과 분석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평상시의 전투체력이 악조건 하에서의 발휘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



표 4 KCTC 훈련간 전투체력 저조 교훈 및 원인(전투프로 I, 7쪽)

구분	내용
사례	1. A연대 1대대는 공격간 갑작스런 기온강하와 강설로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공격개시선 통과가 4시간 지연되었고, 이후 36시간 동안의 주·야간 연속된 작전으로 전투피로가 누적되어 적 경계지대를 극복하는 데 실패하였다. 2. C연대 3대대장은 공격개시선 이동간 장병들의 체력수준을 과신하여 최초부터 산악지역으로 이동시킨 결과, 예하부대는 기동방향을 상실하고 속도가 저하되어 공격개시선 통과가 지연되었다.
교훈	• 험한 산악지형과 급변하는 기상하에서는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임무수행이 제한될 수 있다. • 따라서, 산악군으로 근지구력을 배양하고, 극한상황 극복훈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부대의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원인	• 주둔지내 평지위주 체력단련으로는 험한 산악지역 극복 제한 • 체력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부대운용은 전투실패를 초래 • 체계적인 체력단련으로 극한상황 극복능력 배양 필요

※ 악기상하에 험한 산악지역으로 기동시에는 피로가 누적되어 급격히 기동속도가 둔화되므로 작전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2) 육군에서 시행하는 전투력 측정제도로서 병진급 측정과 연계하여 병사들의 체력분야 특급, 사격에서 특등사수로 선발된 요원에 게 부여되는 자격이다. 병사들 중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한 인원에게 부여되는 자격인.

3) BC 480년,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100만 대군이 그리스를 침공한다. 그리스 군의 연합이 지연되자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는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을 이끌고 '테르모피레 협곡'을 지킨다. 100만 대군과 맞서는 무모한 싸움. 그러나 스파르타의 위대한 용사들은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기자신의 명예를 위해 불가능한 이 전투에 맹렬히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건다! 전설이 된 전투, 그들의 용맹함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영화이다.

레로 큰 교훈으로 도출할 수 있다. 또한 KCTC 훈련의 결과와 전사를 살펴보면 최종목표를 탈취하는 인원은 대규모 부대가 아니라 소대급 이하의 소수인원이었다. 따라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임무를 완수하는 소수의 정예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특급전사²⁾들이 이러한 최종목표를 탈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적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특급전사를 많이 양성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전투력발휘가 용이할 것이다. 과거 스파르타의 군사영화 '300'³⁾에서처럼 우리의 교육훈련도 이제는 '잘 하는 인원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나. 하향평준화 극복방안 및 혁신사례

못하는 인원을 잘 하게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노력을 절약하여 잘하는 인원에게 집중하여 더 잘하게 함으로써 전투목표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못하는 인원의 눈높이로 하향평준화 되어 전반적인 수준이 미흡하다. 또한 행군의 경우 40km만 고집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한다.

따라서 하향평준화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표 5>에서와 같이 '잘 하는 인원을 더욱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1개 중대를 100명으로 가정시 100명 모두가 90점 이상 달성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병사들간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로 우수한 70~80명만 선별하여 90점 이상 달성하는 것은 보다 쉬울 것이다. 즉, 못하는 인원은 최소한의 요구사항만 달성하고 잘 하는 인원에 대한 지원과 도우미로 편성하여 잘 하는 인원을 더욱 잘 하게 함으로써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新훈련개념의 정립이 필요할 때이다.

예를 들어 1개 대대가 100km 장거리행군인 경우 100% 참석하여 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70~80%만 동참하고 그 외 인원은 능력에 따라 40~60km만 동참시켜 장거리 행군인원에 대한 지원임무를 부여한다면 전투력은 훨씬 증가 될 것이다. 혹자는 100% 인원을 한 명도 열외 없이 동참시켜야 진정한 의미의 전투력 창출이라고 주장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실을 무시한 어리석은 생각이다. 오히려 이러한 현실을 냉철히 파악하여 실현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하향평준화의 원인에서도 나타나듯이 과거보다 어려운 입대자원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발전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되고, 못하는 인원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못하는 인원에게 노력을 집중하여 낭비하는 것보다 잘 하는 인원에게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전투력 창출이 증대될 것에 착안하여 훈련개념을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이것은 못하는 인원으로부터 노력을 절약하여 잘하는 인원에게 노력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특급전사와 같은 특등사수능력과 특급의 체력을 구비한 전사가 많아야만 전투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부대전투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또한 잘 하는 인원위주로 100km, 200km, 천리행군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훈련성과는 훨씬 극대화 될 것이다. 우리부대들의 훈련모습은 달라지고 과거의 훈련보다 한 차원 격상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시기에 <표 1>과 <표 6>에서와 같이 제1야전군에서의 천리행군과 100km 행군이 활성화되고 정착되어 보편화된 것은 극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전투체력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이 성공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접맥된 혁신사례이다.

4. 결론

군대의 존재가치는 전쟁의 억제와 전쟁발발시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적과 싸워 이기려면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교육훈련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선도하여 적용한 혁신사례처럼 신개념의 훈련주의가 교육훈련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특히, KCTC 훈련간 사전 충분한 체력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력이 악조건 하에서는 전투력 발휘가 제한된다는 점을 뼈 아픈 교훈으로 도출하였다. KCTC 훈련으로 기존 훈련의 문제점을 알 수 있게 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교훈을 극복하기 위한 전투체력 배양에 목적을 둔 강인한 훈련의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기껏 해온 것이 40km 행군에 고착되어 더 이상의 발전은 더디었다.

따라서 수색·특공대대가 실시하는 천리행군과 보병대대가 실시하는 100km 행군을 활성화하여 정착한 것은 시대를 선도한 제1야전군의 혁신사례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실전상황 고려시 악조건 하에서의 전투체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실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되고, 행군을 완주한 장병의 사기는 높고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내적 성숙도 대단하며 인화단결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또한 신훈련주의가 체력단련분야 뿐만 아니라 타분야의 교육훈련에도 방향을 제시하는 혁신마인드로 확산시키고, 고정관념의 과감한 탈피로 하향평준화를 극복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 육성에 일조할 것임을 확신한다.

표 6 천리행군 및 100km 행군 지침 (제1야전군)

- 수색·특공부대는 연 1회 천리행군(400km) 실시
- 군단 예비사단 보병대대는 연 1회 100km 행군 실시
- ※ '09. 9. 1 이후군 예하모든 보병대대로 확대(방법 사단 장급 지휘관에게 위임)

표 5 하향평준화 개념 및 사례

구분	~을 (하향평준화 경향)	~으로 (하향평준화 극복)
개념	못하는 인원의 눈높이	잘하는 인원을 더 잘하게
사례	40km 이하 행군고집	100km, 천리행군 실시